

부활절 일곱번째 / 어머니 주일
THE WORSHIP SERVICE OF 7TH SUNDAY OF EASTER

주후 2024년 5월 12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통일 424)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19 번 시편 32 편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643 장 “세번 아멘” (통일 555)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김강석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요(John)17:6-19, 요일(1 John) 5:9-13	금종각 집사
찬 양 Anthem	“이 가정 주인되신 예수께”	찬양대
설 교 Sermon	“ 알게 하려 함이라 (I Will Let You Know)	김일선 목사
결단의찬양 Commitment Hymn	“주님만 사랑하라”	다같이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17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통일 353)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파송 찬양 Closing Hymn	453 장 “예수 더 알고 원하네” (통일 506)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성경은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며, 네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모님의 희생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겼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진정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존중하며,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 23:22,5, 엡 6:2)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일 5:13)

“I write these things to you who believe in the name of the Son of God so that you may know that you have eternal life.” (1 John 5:13)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5/12 (주일)	5/13 (월)	5/14 (화)	5/15 (수)	5/16 (목)	5/17 (금)	5/18 (토)
	민22	민23	민24	민25	민26	민27	민28
본문	시62,63	시64,65	시66,67	시68	시69	시70,71	시72
	사11,12	사13	사14	사15	사16	사17,18	사19,20
	약5	벧전1	벧전2	벧전3	벧전4	벧전5	벧후1

수/요/ 찬/양/집/회

토/요/ 새/벽/기/도/회

수요 찬양집회 (5/15수 오후7:30)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왕하20:1-7)
토요 새벽기도회(5/18토 오전6:30)	“굽어살피시며 아심이니이다” (사138:1-8)

지난 주일(5/5) 말씀

“이제부터는” (요 15:9-17, 요일 5:1-6)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또한 우리가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오늘날 세상에 만연한 무관심과 편견과 증오와 거짓에 우리가 휩싸이지 않으며, (온통) 죄악과 향락과 물질적 가치만을 우선시하는 세상 속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편승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12:2)는 사도 바울의 권면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실천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의 죄된 속성으로는 결코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게 될 때, “그때부터는 (이제부터는)”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요(요13:35), 예수님의 친구요(요15:14),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요일5:2) 여겨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주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냐?”라며 세번이나 반복해서 물으셨던 것처럼, 지금도 주님께서는 동일한 질문을 우리에게도 물어보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만이 다시금 우리를 새롭게 하며, 오직 그 사랑만이 다시금 우리를 숨쉬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온통 혼돈과 대립 그리고 폭력으로 얼룩진 오늘날의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진정) 마음을 이기는 사랑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진밀한) 예수님의 친구로 인정받으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